

제 목: 2014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4월 CBSI 8.6p 상승한 76.5 기록

- 4년 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계절적 요인, 수도권 분양여건 일부 개선 등 영향 -

□ 2014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8.6p 상승한 76.5를 기록

- 이는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만에 최고치임. 그만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 폭 완화됨.
- 다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CBSI는 지난 2월 14개월만에 최고치인 68.9를 기록한 이후, 3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영향으로 67.9를 기록해 1개월만에 다시 하락했음.
- 그러나, 4월 들어 8.6p 상승했는데, 이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의 부정적 영향이 이미 3월 CBSI에 반영되었고, 4월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없는 가운데,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수도권 주택분양 여건 일부 개선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CBSI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4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2.8p 하락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5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4월보다 좀더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즉 4월에 나타난 건설경기의 침체수준 개선이 5월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건설기업들은 전망함.
- 그동안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했던 기저효과, 수도권 주택경기의 일부 회복 영향으로 향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중견업체, 중소기업체 지수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견업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7p 상승한 92.3을 기록함. 2014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올 들어 처음으로 90선을 상회하였음.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5.2p 상승한 75.9를 기록함. 이는 2011년 3월의 7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이 없는 가운데, 주택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 특성상 수도권 분양여건 개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2p 상승한 58.8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소폭 개선됨. 2014년 1월 이후 매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은 대형 및 중견업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체감경기 개선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0, 93.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6, 79.9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7.1, 71.8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 지수는 2월 대비 12.7p 상승했던 3월(77.8)에서 다시 6.0p 하락하여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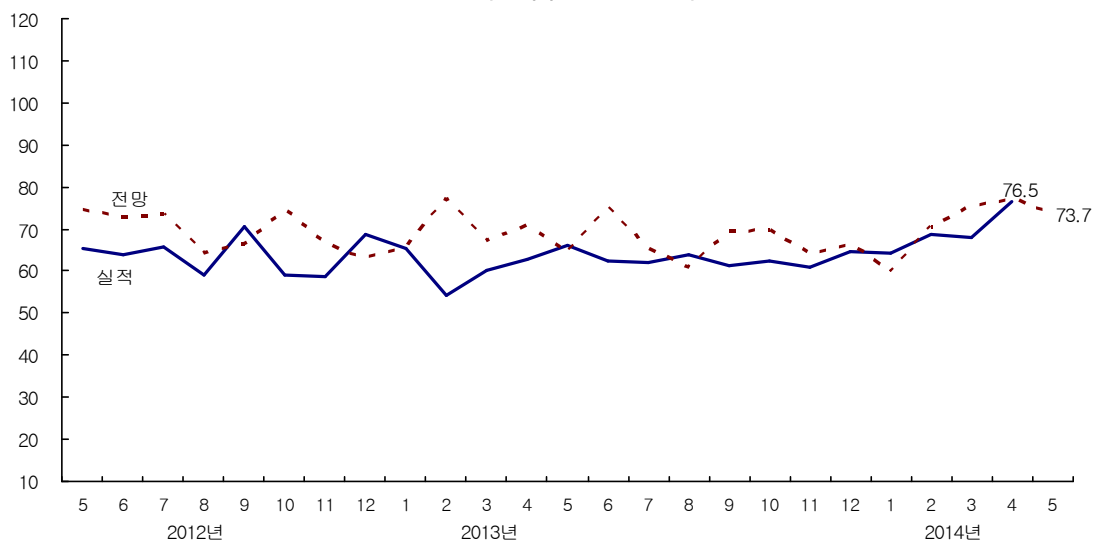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CBSI 8.6p 상승한 76.5 기록
4년 2개월만에 최고치 기록

- 2014년 4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8.6p 상승한 76.5를 기록함.
 - 이는 2010년 2월 77.6을 기록한 이후 4년 2개월만에 최고치임. 그만큼 건설기업의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 폭 완화됨.
 - 다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중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 CBSI는 지난 2월 14개월만에 최고치인 68.9를 기록한 이후, 3월에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영향으로 67.9를 기록해 1개월만에 다시 하락했음.
 - 그러나, 4월 들어 8.6p 상승했는데, 이는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의 부정적 영향이 이미 3월 CBSI에 반영되었고, 4월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없는 가운데, 발주물량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 수도권 주택분양 여건 일부 개선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쳐 CBSI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중견업체, 중소기업 지수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견업체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비 7.7p 상승한 92.3을 기록함. 2014년 들어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올 들어 처음으로 90선을 상회하였음.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분양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중견업체 지수는 전월비 15.2p 상승한 75.9를 기록함. 이는 2011년 3월의 7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추가적인 부정적 요인이 없는 가운데, 주택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중견업체 특성상 수도권 분양여건 개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2p 상승한 58.8를 기록해 전월에 비해 체감경기 침체수준이 소폭 개선됨. 2014년 1월 이후 매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 폭은 대형 및 중견업체에 비해 여전히 낮아서 체감경기 개선 수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2.4	62.1	64.0	61.2	62.3	60.9	64.5	64.3	68.9	67.9	76.5	77.3	73.7
규모 별	대형	78.6	85.7	92.9	85.7	84.6	85.7	92.9	78.6	84.6	84.6	92.3	100.0	83.3
	중견	64.3	50.0	48.1	50.0	51.9	60.7	50.0	67.9	66.7	60.7	75.9	66.7	76.7
	중소	41.2	48.1	48.1	45.3	48.1	32.0	47.9	43.4	52.9	56.6	58.8	62.7	59.2
지역 별	서울	71.6	68.7	70.9	73.1	71.2	74.2	73.2	71.6	73.8	70.4	87.5	80.8	83.2
	지방	52.6	51.9	53.3	39.3	49.0	41.1	51.6	52.8	61.7	64.3	66.0	72.0	61.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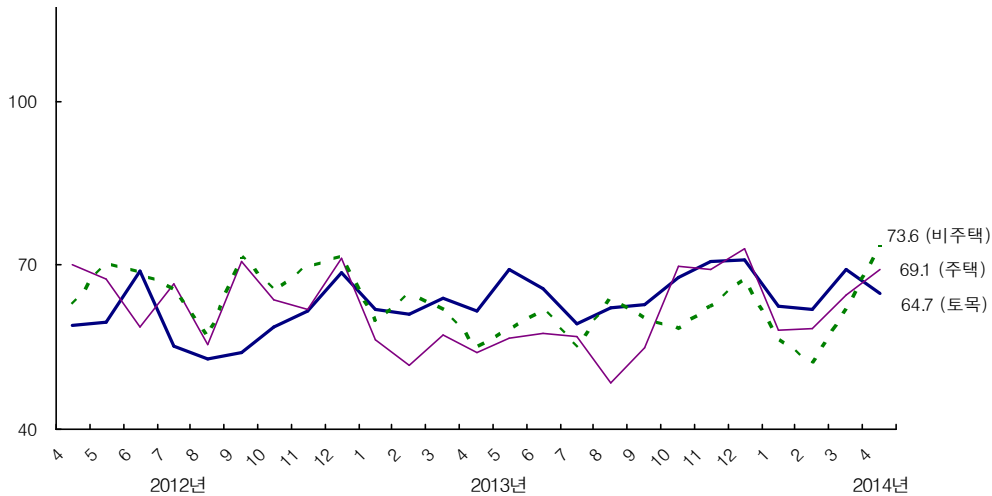
- 한편, 2014년 5월 CBSI 전망치는 4월 실적치 대비 2.8p 하락한 73.7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하락한 것은 그만큼 5월에는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4월보다 좀더 악화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의미임.
 - 즉 4월에 나타난 건설경기의 침체수준 개선이 5월까지 지속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건설기업들은 전망함.
 - 그동안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했던 기저효과, 수도권 주택경기의 일부 회복 영향으로 향후 CBSI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회복 속도는 매우 더딜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4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17.1p 증가한 87.5를 기록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지방 업체 또한 전월 대비 1.7p 증가한 66.0을 기록해 지수가 소폭 개선됨.
- －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7.1p 증가한 87.5를 기록함. 결국 지난 2012년 9월 80.5를 기록한 이후 1년 7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하였으며, 2011년 9월 91.6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66.0을 기록, 지난 2011년 12월 70.1을 기록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2014년 4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8.2p 상승한 74.8 기록
--

- 2014년 4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8.2p 상승한 74.8을 기록함.
- － 공사 물량 지수는 올해 1월에 전월 대비 10.1p 감소한 62.6을 기록한 이후 2월도 4.2p 감소한 58.4를 기록, 2개월 연속 감소하였음.
- － 3월에 들어와 흑한기가 끝난데 따른 계절적인 요인으로 지수가 전월 대비 8.2p 상승한 66.6을 기록, 물량 침체 정도가 다소 완화됨.
- － 4월에도 8.2p 상승, 지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해 지난해 12월 72.7과 비슷한 수준인 74.8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 4월 지수 74.8은 지난 2010년 12월 75.7 이후 4년 4개월만에 최대치임. 다만,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70선 중반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했는데, 향후 다시 이런 패턴을 반복할지 귀추가 주목됨.
-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보다 하락하였으나, 주택이 전월보다 상승하였으며, 비주택 물량지수의 개선 또한 두드러짐.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지난 1월과 2월 각각 62.4, 62.0을 기록해 공종별로 유일하게 60선을 넘었음. 3월에는 전월보다 7.2p 상승한 69.2로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4월에 들어와 전월대비 4.5p하락한 64.7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임.
 - 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3월 전월 대비 6.1p 증가한 64.5를 기록하였으며, 4월에도 4.6p 증가한 69.1로 70선에 근접,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지난 3월 전월 대비 10.0p 증가한 62.0을 기록하였는데 4월에도 10p 이상인 11.6p 증가해 73.6을 기록함. 공종별로 가장 양호했으며, 지난 2011년 9월 77.1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업체 규모별로 대형과 중소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중견업체가 전월 대비 20p 이상인 23.1p 증가해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84.6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이 23.1p 하락한 69.2를 기록하였으나, 비주택이 전월보다 15.4p 상승한 92.3을 기록함. 한편 주택은 전월과 동일한 69.2에 머뭇.
 - 중견업체 물량지수는 물량 침체 상황이 개선됨과 동시에 지난 3월 53.6으로 3월 지수로는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따른 반작용이 함께 작용해 전월 대비 23.1p 급등한 76.7을 기록함. 공종별로 모든 지수가 전월보다 10p 이상 개선되었는데,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6.7과 67.7로 60선을, 주택이 86.7로 80선 중반의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중소기업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8p 증가한 61.2를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이 48.8로 가장 낮으며,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57.1, 58.3을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4.8	84.6	76.7	61.2	81.0	67.7
	전망	77.8	92.3	79.3	59.2	90.4	61.8
토목	실적	64.7	69.2	66.7	57.1	70.0	58.7
	전망	73.3	92.3	72.4	52.1	86.2	56.4
주택	실적	69.1	69.2	86.7	48.8	72.2	67.2
	전망	75.1	84.6	82.8	55.3	85.6	61.4
비주택	실적	73.6	92.3	67.7	58.3	84.2	59.3
	전망	80.1	107.7	66.7	63.0	91.7	64.3

주 : 실적은 2014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5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보다 12.6p 상승한 81.0를 기록하였으며, 지방도 3.6p 상승한 67.7을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서울소재 중견업체 지수상승에 힘입어 전월 대비 12.6p 상승한 81.0를 기록함. 이로써 지난 2013년 12월 82.5를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3.6p 상승한 67.7을 기록, 지난 2010년 4월 71.1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 2014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4월보다 3.0p상승한 77.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통상 4월보다 5월에 물량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공종별로 살펴보면, 비주택이 가장 높은 80.1을 다음으로 주택이 75.1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토목은 73.3으로 전망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조달 상황 가장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9.0, 93.0을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남.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 및 자재 수급 상황은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음.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7.6, 79.9을 기록해 자재비 상황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87.1, 71.8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자금조달 지수는 2월 대비 12.7p 상승했던 3월(77.8)에서 다시 6.0p 하락하여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냄.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7.1	100.0	87.1	72.0	97.1	74.4
		전망	92.2	115.4	86.7	71.4	105.1	75.5
	자금조달	실적	71.8	76.9	71.0	66.7	75.0	68.9
		전망	76.8	84.6	73.3	71.4	81.0	72.5
인력	수급	실적	99.0	115.4	96.8	82.4	113.8	76.3
		전망	98.9	107.7	106.9	79.6	111.8	80.0
	인건비	실적	87.6	92.3	100.0	68.0	95.4	72.9
		전망	86.8	92.3	100.0	65.3	95.5	73.8
자재	수급	실적	93.0	92.3	100.0	86.0	96.4	87.9
		전망	96.7	100.0	103.3	85.4	101.0	90.2
	비용	실적	79.9	92.3	83.9	60.8	86.9	68.9
		전망	85.8	107.7	86.7	59.2	97.6	67.7

주 : 실적은 2014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4년 5월 예측지수임.